SK AIGEN 2027 · PORTFOLIO

사회·공공·교육 분야

# 공이 있을 곳으로

## 1%의 기술이 99%를 향하도록



## 동준희

진주 · 클래식 공연단체 율리랜드 기획·행정 ·
정치외교학 석박사통합과정 · 기프티굿 준비

> 중학교 2학년 때 본 강연 하나에서 시작해,
> 통일과 지역이라는 두 문제를 붙들고 말과 글,
> 콘텐츠, 그리고 AI로 이어 온 제 이야기입니다.

LINKS

DEMO SITE
**기프티굿 시연 사이트**
giftygood-showcase.pages.dev

ABOUT ME
**자기소개 웹페이지**
dongjunhui.pages.dev

01

# 중학교 2학년 때 본 강연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 강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는 분의 추천으로 강연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2008년 아주대학교에서 있었던 박경철 님의 강연이었습니다. 두 시간이 채 안 되는 강연이었지만, 중학생이던 저에게는 큰 통찰을 준 강연이었습니다.

인상 깊은 대목은 많았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박경철 님은 제러미 리프킨의 말을 빌려, 세상의 혁신은 0.1%의 천재와, 그 천재를 알아보는 0.9%의 안목 있는 사람이 이끈다고 했습니다. 0.1%가 "이것이 새로운 미래다"라고 말하면 0.9%는 동의하며 함께 뛰어듭니다. 나머지 99%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대를 의심하고 때로는 조롱합니다. 그러다 그 기술이 시대를 지배하고 널리 퍼진 뒤에야 "그래, 이게 맞았구나" 하며 따라갑니다.

**0.1%**
천재

**0.9%**
안목 있는 사람

**99%**
변화가 퍼진 뒤에야 따라가는 다수

강연을 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재는 아닌 것 같으니, 0.9%의 안목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질문을 품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MY HABIT

**사람들이 "저건 너무 이상하다", "미친 것 같다"라고 말할 때, 혹시 저게 0.1%는 아닐까 하고 한 번 더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0.9%의 안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담았습니다.

CONTENTS


| | | |
|---|---|---|
| 01 | 중학교 2학년 때 본 강연 | 2 |
| 02 | 통일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일 | 3 |
| 03 | 대학생 때: 지역 문제 | 3 |
| 04 | 율리랜드: 소리로 도시를 디자인하다 | 4 |
| 05 | 생각을 전하는 세 가지 도구 | 7 |
| 06 | 지역을 담은 상자 | 8 |
| 07 | 통일과 지역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 9 |
| 08 | 넉넉하지 않았지만 | 10 |
| 09 | 대학원, 그리고 AI | 11 |
| 10 | 기프티굿 | 11 |
| 11 | 1%의 기술이 99%를 향하도록 | 13 |
| 12 | 공이 있을 곳으로 | 14 |

02

# 고등학생 때: 통일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일

고등학생 때 사회 시간에 통일 문제와 관련된 과제를 하다가, 통일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통일 문제는 특히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AI가 없던 시절이었으니, 내가 살아가면서 겪을 가장 큰 일, 특히 정치나 역사의 관점에서 이 청년 세대가 겪을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그것은 통일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흔히 말하는 장밋빛 통일, 평화적인 합의를 통한 통일만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도 통일의 과정입니다. 두 국가인 상태에서 교류만 이루어지는 상황도 정치학적으로는 통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조금이라도 준비되어 있어서, 그 과정이 조금이라도 잘 풀리는 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제 비전입니다. 고등학생 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고교 통일논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관련 학교와 학과에 진학해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며 북한과 통일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03

# 대학생 때: 지역 문제

어느 때부턴가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자라고,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오고, 지금도 지방에서 생활하는 지역 주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환경과 사람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인구 문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구 문제의 본질은 지역 문제에 있다고 봤습니다.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의 흐름입니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인구 문제와 바로 이어진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04

# 율리랜드: 소리로 도시를 디자인하다

**이 땅, 이 지역에서 더 좋은 음악이 들렸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던 중,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 클래식 공연을 같이 기획하고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게 된 클래식 공연단체가 율리랜드입니다. '율'은 음률의 율, '리'는 마을을 뜻하는 리, '랜드'는 땅입니다. 율리랜드는 2017년에 활동을 시작해 10년 가까이 이어 온 단체이고, 거의 진주에서만 공연을 해 왔습니다. 저는 율리랜드에서 기획과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누린다는 것

진주처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에는 취향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지역 사람들은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이런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본 그 강연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목 있는 사람, 곧 통찰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이랬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화예술을 많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경철 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전시회에 '사랑'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었는데, 큰 흰 종이를 찢어 놓은 것 같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게 무슨 사랑이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작품 앞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으니 작가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작가는 '사랑'을 주제로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도 마음속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온전히 표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종이를 북북 찢었더니 그제야 감정이 풀리며 "이제 내 사랑이 표현되었다"고 느꼈고, 그 종이를 그대로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관람객은 작가의 마음에 동화되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리랜드 공연에서 사회를 보는 저

너무 단적인 예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문화예술이 주는 통찰이 시대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율리랜드가 클래식 공연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클래식은 가장 오랜 시간 잊히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있을지 모르는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수백 년 동안 가치를 잃지 않고 사랑받아 온 것이 있다면 지금 더 귀하게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앙일보 콩쿠르 우승자를 초청하는 등 진주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04

# 시민이 무대에 선다면

**「시민들이 만드는 열린 공연장」 2022년 10월 20~21일, 호탄동 야외무대**

율리랜드의 슬로건은 '소리로 도시를 디자인하다'입니다. 율리랜드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그 영감으로 도시에서 자기 역할과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 도시는 반드시 바뀔 것입니다. 그중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 도시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저희가 품은 생각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문 연주자가 공연하고 시민이 듣는 구조인데, 시민이 그 무대에 설 수는 없을까. 그래서 공연의 이름을 '소리로 시민들이 도시를 디자인하다'로 정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시민 연주자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영향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당장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내고 시작해 보니, 생각보다 곳곳에서 정말 진지하게 악기와 음악을 대하며 취미를 키워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악, 첼로, 하모니카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네 분의 시민 연주자가 무대에 섰습니다. 이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 연주자만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문 피아니스트와 일대일로 짝을 이뤄 협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지원을 받아 열렸습니다. 설문으로 지원자를 모으고 면접으로 시민 연주자를 뽑았으며, 연습 영상과 리허설을 보며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공연 뒤에는 "이런 시민 참여 프로젝트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후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어떤 일을 기획할 때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 주었고, 제 안의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시민들이 만드는 열린 공연장」 리플렛 슬로건



2022년 10월 호탄동 야외무대에서 열린 「시민들이 만드는 열린 공연장」

**율리랜드 인스타그램 @yully.land**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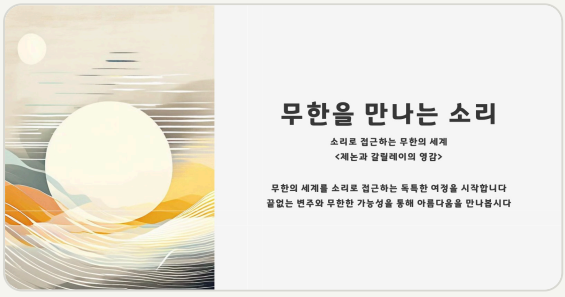
# 위기 앞에서: 공연장 밖으로

**클래식 공연단체에게 가장 치명적인 시기는 코로나였습니다.**

공연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저도 그 무렵 군에 입대하면서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 남아 단체를 계속 이끌어 오셨고, 저는 전역한 뒤 다시 율리랜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은 종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클래식 교육 봉사를 해 오셨는데, 그 일을 함께하면서 공연장에서 연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과 긴 논의 끝에 클래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함께 설계했고, 수업 자료와 PPT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 학교에서: 클래식과 수학을 잇는 수업




제가 만든 수업 PPT 「무한을 만나는 소리」 첫 장

음악에서 보면, 도와 레 사이에도 수많은 음이 있고, 그 바깥으로도 음은 끝없이 확장됩니다. 바흐의 평균율, 특히 전주곡을 보면 음이 수학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한없이 멀어지는 우주 영상을 보여 주며 영화 「인터스텔라」 OST를 연주합니다. 이 수업은 경상국립대 사대부고, 경남과학고, 울산현대고, 진양고, 대구과학고, 거제중앙초, 단성중학교 등에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무한'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넓어지는 우주를 보며 그 우주와 너무 잘 어울리는 음악을 들으면, 무한을 느끼게 됩니다.

### 장애인 기관에서: 미술·클래식 음악 수업

장애인 기관에서도 교육할 기회를 얻어 유명한 미술 작품과 클래식 음악을 함께 감상하며 연결하는 미술·클래식 음악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2024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025년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예술누림' 수업에서 보조강사로 함께했고, 지금도 교육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수업 슬라이드: 베토벤 「월광」 1악장



제가 만든 수업 슬라이드: 고흐 「밤의 카페테라스」

이렇게 율리랜드는 코로나라는 위기, 그리고 공연만으로 단체를 꾸려 갈 수 있을까라는 위기 앞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비전이 더 넓고 분명해지는 쪽으로 새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05

# 생각을 전하는 세 가지 도구: 말, 글,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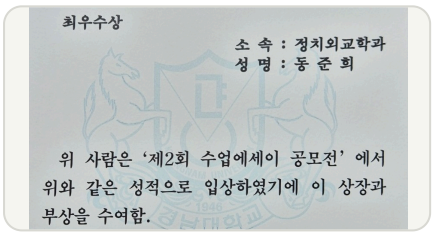
**내가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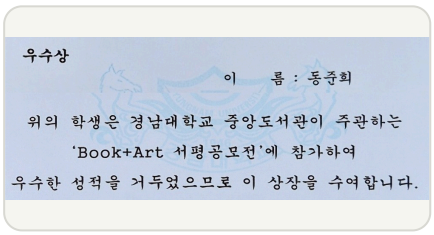
말로 제 생각을 나누기 위해 일반사회 교직을 이수했습니다. 2020년 중학교 교육실습에서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공개수업을 했고, 2024년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일반사회 자격을 받았습니다.

###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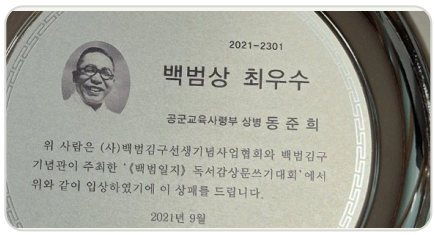
대학 생활 동안 글을 쓸 기회가 있으면 많이 참여했습니다. 2019년 한마 수업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2020년 서평공모전 우수상(『마인드셋』), 2021년 군 복무 중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2019 수업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2020 서평공모전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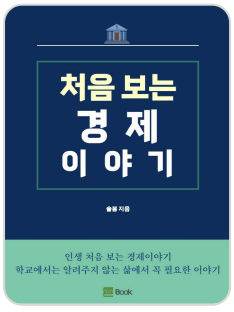

2021 『백범일지』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최우수상

### 말과 글이 만난 곳: 전자책 강사

2023년 진주문화제작소 전자책 출판학교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동안 써 온 글을 모아 전자책 『처음 보는 경제 이야기』와 『백두산 가는 길』 두 권을 출판했습니다. 이후 2023년 사천여자고등학교 방과후 전자책 출판 과정과 진주시에서 강사로 활동했고, 2025년 여름방학에는 서울 중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자책 제작 프로그램에서도 강의했습니다.




2023년 강사양성 과정 수료식에서 발표하는 저




『처음 보는 경제 이야기』
(필명 솔봉 지음)




『백두산 가는 길』

### 콘텐츠

율리랜드의 공연도, 클래식 교육도 콘텐츠입니다. 말과 글도 콘텐츠에 포함되지만, 흔히 말하는 콘텐츠에는 조금 다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6

# 지역을 담은 상자: 시티팩과 지도아름

**지역의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이 다양하게 경험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이었습니다.**

사람은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영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시각과 청각뿐입니다. 후각, 미각, 촉각은 영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바쁜 현대인이 직접 가지 않고도 그 지역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는 없을까. 지역의 상징적인 특산품과 이야기를 한 상자에 담은 '시티팩'을 만들어 펀딩으로 판매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고 자란 진주를 대상으로 진주 시티팩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 경남콘텐츠코리아랩 뉴스타트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캐릭터 기업과 짝을 이뤄 저는 지역 이야기와 기획을, 기업은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콘텐츠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최종 단계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발표 심사를 통과해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진주 시티팩 시제품. 진주 하모샌드, 반성 논개 전통한과, 커피 드립백, 천연염색 손수건, 진주 엽서·스티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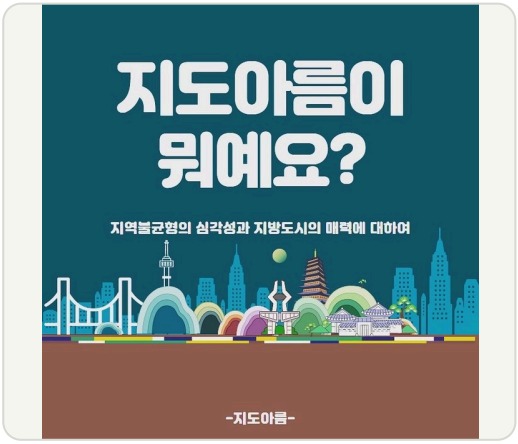



시티팩 상자와 구성품 목록

### 지도아름: 지방 도시도 아름답다

'아름답다'의 어원은 흔히 아는 '예쁘다'가 아니라 '나답다'라고 합니다. 제가 걱정한 것은 지역 발전을 단순히 '제2의 서울'처럼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도시가 자기다움을 알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드러날 때 지방 도시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2022년부터 인스타그램을 열어 지방 도시의 이야기를 담은 카드뉴스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결과가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지역을 더 공부하고 그 지역에 어떤 특색이 있는지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아름 카드뉴스 표지

07

# 통일과 지역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북한 주민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

저는 많은 사람이 서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가야 더 많은 혜택과 일자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에 사람이 몰리고, 다른 지역과 북한 지역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남한의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한의 지역에서 먼저 길을 찾는다면, 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을 살리는 데에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리랜드와 지도아름은 거기서 이어진 일입니다.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주요 연구 주제도 이 두 가지입니다.

**통일음악회 「통일과 클래식, 진주에서 하나되다」**

2023년 11월 24일 율리랜드와 경남통일교육센터가 함께 진주의 작은 카페에서 연 음악회입니다.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지루한 콘텐츠가 많은데, 음악회를 접목하면 다른 관점에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아, 연주 사이에 통일 이야기를 풀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통일음악회에서 대담을 진행하는 저




통일음악회 포스터

**모의 한반도평화회담 (2026년 1월)**

약 120명이 모인 캠프에서 담당자로 모의 한반도평화회담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들과 함께 대표들만 나와 연극 형식으로 진행하는 안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방안을 찾으려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모두가 자기 전공과 관련해 이런 남북한 이슈가 있구나를 실제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왔습니다. 준비 과정은 훨씬 어려웠지만 저는 그 필요성을 설득했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계획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담당자들이 대본을 짜 연극으로 먼저 보여 준 뒤 참가자들이 관광·외교·교육·의료·문화·기술교류 여섯 분야로 흩어져 직접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가이드는 함께 준비했지만 제가 주도해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형식이어서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08

# 넉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주저하는 영역에 편견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라보려 했고, 굳이 필요하냐고 하는 일에도 도전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정환경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내향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이지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본 그 강연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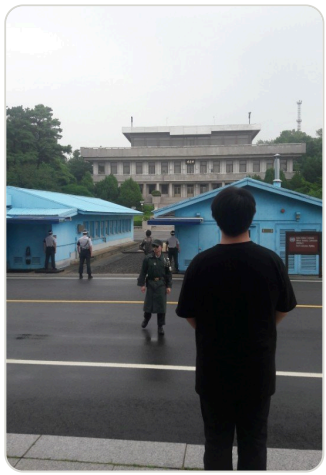
대학 생활에서 감사하게도 통일과 관련해 견문을 넓힐 기회가 많았습니다. 통일교육원 프로그램으로 북중 접경지역에 가서 백두산과 연변, 압록강 너머 신의주를 보며 현장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으로 2019년 베트남의 통일 사례를 보러 갔고, DMZ와 판문점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많은 분의 도움으로 독일 통일 비전트립에 참여해 독일의 사례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많은 분의 도움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북중 접경지역 방문 때 백두산 천지에서




압록강 너머를 바라보며



판문점

## 통일을 주제로 받은 상

| | |
|---|---|
| **2015**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고교 통일논술대회 최우수상 |
| **2017** | 통일 및 북한문제 발표경진대회 대상 (팀) |
| **2018** | 통일토론대회 대상 (팀) |




2018년 통일토론대회에서 팀으로 받은 대상

09

# 대학원, 그리고 AI

**중학교 2학년 때 들은 그 강연에서 말한 0.1%가 만들어 낸 것, 미래를 완전히 바꿀 만한 것이 바로 AI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과 글이 힘을 가지려면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과 글을 전하는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부터 같은 대학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학기까지 마치면 코스워크가 끝나 수업은 더 듣지 않고, 논문만 쓰면 되는 상황입니다.

대학원에 들어와 세상의 소식과 시대의 흐름을 보며 거스를 수 없는 요소가 하나 있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제가 SK AIGEN에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찾아보고 공부한 끝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은 무언가에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모두의 창업'에 도전했고, 감사하게도 1라운드를 통과해 지금 창업 과정에 뛰어들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10

# 기프티굿: 당신의 재능이 취미로만 머물지 않도록

대학 동아리 후배 중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동아리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그려 스티커로 만들어 부원들에게 나눠 주었는데, 다들 노트북, 태블릿, 텀블러, 휴대폰 케이스에 붙이고 다닐 만큼 완성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가 되자 그 후배는 그림이나 디자인과 상관없는 다른 직종으로 갔습니다.

부업으로라도 굿즈를 만들어 팔아 보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후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장 최소 수량을 맞추려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먼저 넣어야 하고, 안 팔리면 재고를 방에 쌓아 둬야 하고, 일을 하면서 밤마다 택배를 싸고 문의까지 받을 자신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2023년 율리랜드 공연을 텀블벅 펀딩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상세페이지 제작과 기획을 맡았고, 펀딩으로 10,411,000원이 모였습니다. 그 친구가 포기한 것은 재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디자인을 굿즈로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군가 대신해 준다면 어떨까. 공장 최소 주문 수량에 맞춰 펀딩으로 먼저 수요를 확인하고, 목표 수량이 차면 주문 제작부터 배송까지 해 주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창작자는 디자인을 올리고, 어떤 굿즈로 만들지 고르고, 몇 명이 모이면 생산할지만 정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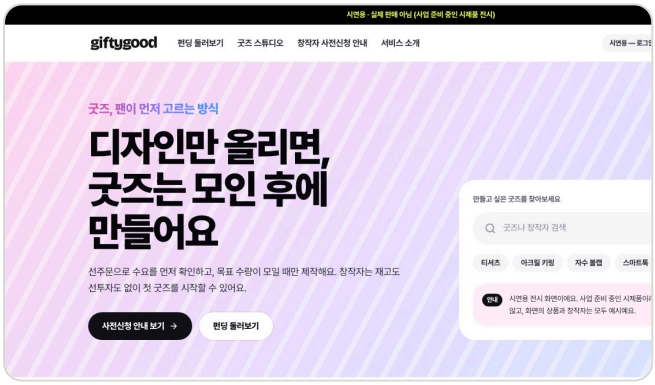
10

# 디자인만 올리면, 나머지는 플랫폼이

**펀딩이 안 되면 제작하지 않으니 재고가 남을 일도 없습니다.**

처음 자리를 잡으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구독자나 팔로워가 10만 명 이하인 마이크로 크리에이터입니다. 티셔츠의 최소 주문 수량은 30~50장 정도입니다. 구독자가 만 명이라면 그중 30~50명만 펀딩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이름은 '기프티굿'입니다.

기프티굿은 AI가 없었다면 시작할 수도, 도전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문계 공부를 하는 저에게 프로그램 개발, 웹페이지 개발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ChatGPT, Claude, Gemini 같은 프런티어 모델을 AI 에이전트로 활용해 웹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시연용이지만 직접 만들었습니다.




기프티굿 시연 사이트 첫 화면




손해 나는 판매가로는 펀딩이 열리지 않게 고친 시연 화면

AI를 쓰면서 조심해야 할 점도 배웠습니다. 평가하는 AI를 바꾸자 점수가 높았던 시제품에서 창작자에게 손해가 나는 펀딩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손해 나는 펀딩은 아예 열리지 않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AI가 정리한 업체 단가표도 표본 28건 가운데 10건이 원문과 달랐습니다. AI는 큰 힘이 되지만,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일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SK AIGEN에 선정된다면, 이 사업은 잠시 미루고 AIGEN에서 최선을 다해 배우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다음에 사업을 제대로 해 보고 싶습니다.

DEMO SITE

**기프티굿 시연 사이트**

**https://giftygood-showcase.pages.dev**

11

# 1%의 기술이 99%를 향하도록

SK AIGEN에는 사회·공공·교육, 창업·비즈니스, 문화·예술·스포츠, 기술 탐구의 네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네 분야 모두에 관심이 있고, 제 경험이 모두에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먼저 제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공공·교육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제 경험과 SK AIGEN이 연결된다면, 꿈꿔 온 많은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본 그 강연으로 돌아갑니다. 그 강연에서 얻은 것은 "내가 0.1%가 아니라면 0.9%의 안목 있는 사람이 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목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왜 안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MY ANSWER

**0.9%가 되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1%의 기술이 1%만을 위한 기술로 남지 않고 99%를 향하는 기술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기술은 빠르게 바뀌며,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99%를 향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기프티굿이라는 이름과 '당신의 재능이 취미로만 머물지 않도록'이라는 슬로건에도 1%의 기술이 99%의 사람에게 닿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리로 도시를 디자인하다 → 지역 → 북한과 통일

율리랜드의 좋은 소리를 들은 시민들은 그 소리에서 영감을 얻고, 영감을 얻은 시민들은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 가치가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할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과 준비와 역량으로 지역을 디자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디자인한 그 경험으로 북한과 통일을 디자인하겠습니다. 또 디자인이라는 재능을 취미로만 가진 사람들이 그 재능을 세상에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12

# 공이 있을 곳으로

2007년, 세상을 바꾼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처음 공개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소개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아이스하키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의 말입니다.

## "공이 있는 곳이 아니라, 공이 있을 곳으로 움직여라."

모두가 지역은 소멸한다고 말할 때, 저는 지역을 주목하겠습니다.
모두가 통일은 먼 일이라고 말할 때,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모두가 안정을 고를 때, 도전을 고르겠습니다.

---

**공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이 분단 한국에서 통일 한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이 안정적인 성공 코스에서 시대의 변화에 도전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움직이고 뛰어들어, 그곳에서 공을 기다리겠습니다.**

DEMO SITE
**기프티굿 시연 사이트**
giftygood-showcase.pages.dev

ABOUT ME
**자기소개 웹페이지**
dongjunhui.pages.dev

율리랜드 인스타그램 **@yully.land**

지금까지 제 말과 글, 그리고 제 콘텐츠를 경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준희**